

# 나주학생 단돈 1만원에 '강남 인강' 듣는다

### 市, 중·고교생 150명씩 4만5천원 중 3만5천원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액 무료...교육격차 해소 기대

나주시가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단돈 1만원에 서울 강남구 인터넷강의(이하 강남 인강)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중·고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만 13-18세) 300명을 대상으로 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 신청을 11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시의 이번 지원은 강남의 수준 높은 인강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 인강에서는 현직교사, EBS, 스

타강사들이 중1부터 고3까지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1천600여개 강좌를 연중 제공한다. 개념 완성과 심화학습, 문제 풀이 등 난이도별 강좌, 학년·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1년 수강료 4만5천원 중 3만5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150명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선착순 모집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1가구당 1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형

제, 남매 등과 ID공유도 가능해 한 가정에서 중·고등 과정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납부하고 강남 인강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핸드폰으로 기 발송된 수강 쿠폰을 입력하면 된다. 수강 쿠폰은 등록 후 1년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은 지난해 10월 나주시와 강남구청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강남구는 당시 협약을 통해 유명 강사 초청·입시컨설팅,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기회 등을 나주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23일엔 빚가람동 소재 국립전파연구원 빚가람전파홀에서



윤병태 나주시청오른쪽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유명강사 초청·입시컨설팅, 인터넷수능방송수강기회 등을 나주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나주시제공)

‘새학기 대비 강남인강 집중 특강’이 열리기도 했다.

중·고교생,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 인강, EBS 강사, 입시전문가들이 초빙돼 중·고교 학습전략과 맞춤형 진학 노하우를 제공하며 큰 호응

을 얻었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급변하는 입시제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특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교육 도시인 강남 인강을 나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기뻐 크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강남 인터넷강의 수강 지원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나주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등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정환기자



혼신의 역주 제7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강진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회 이틀째인 지난 6일 여자개인도로에 참가한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역주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영암 ‘청소년 K-컬처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15일까지 접수...상금 400만원 차등 수여

영암군은 7일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열릴 ‘청소년 K-컬처 콘테스트’(사진) 참가자를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청소년 K-컬처 콘테스트’는 노래·댄스·밴드 등 다채로운 재능을 펼칠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의 무대로, 봄 날을 수놓을 다양한 초청 공연도 준비 중이다.

전남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23일 예선전을 통과한 12팀이 왕인문화축제 기간 열리는 본선 무대에 설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은 총 상금 400만원을 걸

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팀, 장려상 2팀, 인기상 2팀을 선발하며 모든 본선팀에게 참가상을 수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팩스(061-470-2582)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펼치고, 함께 어울려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무대로 행사를 꾸미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이달 28-31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영암=나동호기자



## 해남군, 5년간 6천912억 확보...현안사업 추진 '탄력'

### 3년간 공모사업 1천500억 이상 선정...6.5배 증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세일즈 행정 결실

해남군이 최근 5년간 괄목할만한 공모사업 추진 성과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고 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천 88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1천500억원 이상 선정,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천91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7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7

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 127건, 1천501억원까지 증가하면서 6.5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지난해 수산양식지자체 클러스터 조성사업(425억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150억원), 역사문화관광 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148억원) 등 대규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또한 올해도 태양광 패널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판로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인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450억원), 친환경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180억원), 공룡박물관 내에 있는 골격전시물을 활용해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는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7억5천만원) 등 19건, 655억원을 확보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의 이같은 성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세일즈 행정의 결실로, 연초 공모사업대

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 속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부터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해남의 모범 사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착수

### 수소클러스터 구축 방안 논의

영광군은 “최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계획 수립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 용역 추진이다.

이날 보고회는 수소산업 육성 방향 설정과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정부의 수소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 수

소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등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토대로 영광군에 특화된 수소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지역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자동차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기반 구축사업,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과 연계해 수소산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기자

### 봄철 재난·안전 위험 신고기간 운영 함평군, 5월 말까지 신고 접수

함평군은 7일 “올해 5월 말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화재(불법 소각 등) ▲축제·행사(인파 밀집 등) ▲해빙기 위험(붕괴·낙석 등) ▲어린이 안전(동학로·놀이시설 등) 관련 총 4가지 유형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군은 봄철 집중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군민에게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마을 회관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익 군수는 “지난해 4월 대형 산불로 함평군에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던 만큼 군민들에게 봄철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재난·안전 위험요인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1천216건의 안전신고 등을 처리했으며, 남도안전화당 운영, 공용 소화기 보급사업 등 군민 안전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김연수기자

## 목포해양대, 광주·전남 일반대 ‘신입생 등록률’ 1위

### 99.7% 달성...전국 국공립대 취업률 1위도 유지

목포해양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 신입생 등록률 1위(99.7%)를 달성했다.

7일 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입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신입생 등록률 99.7%를 달성함으로써 해양특성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전국 국공립대학 취업률 1위(85.4%, 2022년 기준)를 수년째 공고히 유지하

고 있는 목포해양대는 최근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신설로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를 신설, 첨단 조선기술과 해기 지식의 조화를 통해 미래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목포=정혜선기자

서광철 입학학장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수험생이 감소하는 어려운 입학 상황에서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정원 내 신입생 등록률 1위를 이룬 것은 대학의 경쟁력이 반영된 훌륭한 성과로 해석하고 있다”며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적극적인 교육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 실현을 통해 목포해양대를 선택한 입학생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완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본격화

### 1천300t 증설·고도 처리 공법 적용...2026년 완공 예정

완도군은 7일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각종 도시 개발 계획 및 관광객 수요 증가 등으로 하수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5천t의 처리시설에서 1천300t을 증설하

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0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했으며 총사업비 149억원 중 80여억원은 환경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사업은 3월 착공, 2026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미생물 처

리 공법(SBR) 중 하나인 ‘고도 처리 공법’(FA-SBR)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처리 효율이 우수하며, 해안가에 위치한 완도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내구성과 내식성이 뛰어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하수량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